

지난 주 말씀 요약: 서로의 짐을 지는 공동체 <갈라디아서 6:1-10>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연락처도 많고, 단체 대화방과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의 소식을 접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을 맡기고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자녀와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상실,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처럼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교회는 짐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관찮은 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도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깨를 내어 주며 함께 걸어가는 곳입니다.

누군가 넘어졌을 때 그의 실패를 이야기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누군가 아파할 때 너무 빨리 답을 주기보다 먼저 곁에 앉아 주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갈 6:5)고 말씀합니다. 각자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는 함께 들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진다는 것은 “내가 당신 대신 살아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곁에서 함께 걸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한 번의 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갈 6:9)고 권면합니다. 사랑했는데도 달라지는 것이 없고,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그대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공동체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짐을 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무게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넘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시 일으키는 교회, 아픈 사람에게 답부터 주기보다 먼저 곁에 앉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길을 내가 대신 걸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혼자 걷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지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 정선약 목사

행정 / 선교 / 청년: 박준섭 목사

교육 총괄 / 중고등부 / EM: 하동호 목사

유아부: 김희경 전도사

유치 / 유초등부: 박에스터 전도사

심방: 배은옥 전도사

주 일 예 배

주 중 집 회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1:00 (유아, 유치, 유년, 중고등부 동시 예배) 금요 기도회 오후 8:00

English Service (EM), 청년부 예배 오후 1:30 교육부 금요 모임 오후 8:00

주일 성경공부 (EM, 청년) 오후 3:30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주 일 2부 (11시) 예배차량운행

퀵스, 맨하탄: 서정환 집사 347-306-1385

포트리, 팔리세이드파크: 박아브라함 집사 201-421-0089

370 Demarest Ave., Closter, NJ 07624 Tel (201) 784-1974 / Fax (201) 784-1361

KPCA 해외 한인 장로회



뉴저지 하베스트 교회
New Jersey Harvest Church

제 16권 35호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2026년 8월 30일

주 일 예 배	1부(오전 9시) / 2부(오전 11시)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다 함께
* 입 레 송 Hymn	찬송가 9장 1절
* 사 도 신 경 The Apostles' Creed	다 함께
* 경 배 와 찬 양 Praise and Worship	다 함께
* 봉 헌 기 도 Offering	인 도 자
광 고 Announcement	인 도 자
대 표 기 도 Congregation Prayer	1부: 홍성봉 집사 / 2부: 이서구 장로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Ephesians) 4: 29 ~ 30
설 교 Sermon	서로 세우는 공동체 (A Community That Builds One Another Up) 정선약 목사
찬 양 Hymn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 파 송 찬 양 Praise	교 회
* 축 도 Benediction	정선약 목사

*표는 일어서서

다음 주 대표기도 9/6/26 (1부: 박영재 장로/ 2부: 최주원 집사)

교육부: 주일 예배 오전 11시

EM & 청년부: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교육부	말 씀	설 교	본 문
영유아부	김희경 전도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요	사 7:1~8
유치부	박에스터 전도사	Jesus Is God's Plan For Forgiveness	행 2:14~21
유초등부			
YOUTH	하동호 목사	Which Crowd Are You Following?	눅 7:11~17
EM	하동호 목사	If God Is Good, Then Why?	눅 13:10~17
청년부	박준섭 목사	TULIP #3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요 6:35~40

금요 기도회

<정선약 목사>

2026년 9월 4일

오후 8:00

대 표 기 도

신혜원 권사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3:1 ~ 12

설 교

주의 길을 준비하라

새벽 기도회

2026년 9월 1일 - 9월 5일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 새벽 기도회는 생명의 삶으로 진행합니다.

* 금요기도회와 동시에 교육부에서는 어린이, 청소년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6년 공동 기도 제목

1. 2026년 표어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교회” 대로 사랑이 넘치고 또 흘러가 많은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 담임목사님에게 말씀과 기도의 영을 충만히 주시고 동역하는 모든 목회자와 가정들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3. 당회원들과 제직들에게 늘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게 하시고 성령안에서 하나되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소서. 특히 부서장, 사역회장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4. 마을모임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마을지기들에게 섬김의 기쁨과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5.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 교사들과 스터프들에게 넘치는 은혜 주셔서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학생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한글 학교, 여름 학교, 방과후 학교 등이 시작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6. 혼탁한 세상에서 가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자녀들의 믿음이 강하게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만 섬기는 가정되게 하시고, 가정불화, 자녀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7. 우리 교회의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생 쌓아 온 믿음으로 존귀하게 쓰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8. 각 선교지마다 사랑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기선교를 통해 복음의 현장에 순종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9. 영어권 공동체와 청년부가 사랑 안에서 믿음과 정체성을 세워 가며, 세대를 잇는 다리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10. 미국과 대한민국이 분열과 혼란이 아닌 사랑과 정의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11. 한국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12. 우리의 동포 북한, 달린 땅에 복음의 빛과 사랑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자유와 소망을 허락하옵소서.

헌금위원	8/30/26	9/6/26
1부	임성근 집사	최효석 집사
2부	김광호 집사	김문곤 집사



venmo

헌금은 들어 오시면서
미리 헌금함에 넣어 주십시오.

Offering box may be used
to give your offering
as you enter for worship.

온라인헌금 바로가기

지난 주 헌금			
십 일 조	5,529.00	감사헌금	1,200.00
주정헌금	3,218.00	주교헌금	299.00
선교헌금	140.00	지정헌금	1,100.00
친교헌금	150.00	기타수입	122.00
헌금 합계 : 11,758.00			

교회 소식

NJHARVESTCHURCH.ORG

-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안내위원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안내위원에게 통역 수신기를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마을지기 및 부마을지기 월례회** 돌아오는 토요일(9/ 5일) 오전 7시 4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 **세대 통합 예배** 9월달 세대 통합 예배는 9월 20일 창립기념주일에 드립니다.
- **송정미 찬양 콘서트** 손원일 선교재단 미주본부 후원을 위한 찬양 콘서트가 다음 주일 9월 6일 오후 6시에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2026 호산나 전도 대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라는 주제로 본교회에서 열립니다.
신길성결교회 원로 이신웅 목사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일시: 9월 11일(금)-12일(토) 오후 7:30 / 13일(주일) 오후 5:00
- **영유아부·유치부실 리모델링**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

출타 장주성 집사 (멕시코 선교)
구자금 목사 (한국 방문)

새가족 박희석 (3 남사역회, 마을 5), 박선준 (4 여사역회, 마을 5)
박에스터 C (4 사역회, 마을 15), Stanley Wong (6 남사역회, 마을 15)

8월 다섯째 주간 생일 강동출(31일),

9월 첫째 주간 생일 김숙(2일), 박정윤(5일), 이수(5일)

8월 주방 봉사 제 4 남 사역회 & 4 여 사역회

9월 주방 봉사 제 5 남 사역회 & 5 여 사역회

9월 교회 행사

- 9/5 (토) 마을지기모임
- 9/6 (주일) 당회, 마을별 식사, 후원 음악회
- 9/11~13 (금~주일) 호산나 대회
- 9/13 (주일) 마을 모임
- 9/20 (주일) 설립 기념 주일
- 9/27 (주일) 사역회 모임